

충북학 누리!

여는글

지역학의 새로운 길 메타 충북학

대중문화와 충청북도

드라마 속의 충청북도

한시로 읽는 충북의 문화공간

보은의 처사형 학자, 대곡(大谷) 성운(成運)

로컬스토리

#음성 #정석오의_훈 #전설의_고향

디스커버리 충북

-시단의 '황제', 오장환 시인

충북학누리

CONTENTS

01	여는글 지역학의 새로운 길 메타 충북학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	03	05	디스커버리 충북 시단의 '황제', 오장환 시인	17
02	대중문화와 충청북도 드라마 속 충청북도	05	06	충북학 연구소 동정	18
03	한시로 읽는 충북의 문화공간 보은의 처사형 학자, 대곡(大谷) 성운(成運) 조영임 (문학박사)	09	07	충북 지역학 별거 이슈	19
04	로컬스토리 #음성 #정석오의_흔	14	08	충북학 사업 홍보 충북학 원고 모집	21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발간 총괄 정삼철 (충북학연구소장)
기획·편집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민 (충북학연구소 위촉연구원)

통권 4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발행일 2021.10. 31.

01 여는 글

지역학의 새로운 길 메타 충북학



글: 김승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메타버스에 코로나 19가 있을까? 없다. 가상현실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21세기의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는, 인류의 새로운 삶을 열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초현실의 두 공간개념이 혼용된 혼합 현실이다. 어원은 ‘메타(meta) + 버스(verse)’ 즉, 메타의 상태로 변화한 초현실 세계라는 의미다. 이 새로운 공간은 현실세계의 주체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메타버스와 함께 21세기의 21년에 세상을 바꾼 또 하나의 계기가 있다. 그것은 코로나 19, 인류의 역사를 바꾼 전염병이다. 약 20만년 전, 인류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사피엔스(Homo sapience-sapience)로 진화한 이래 처음으로 인류 전체가 같은 질병의 위기에 놓였다. 멸망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인류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다행히 인류는 메타버스와 코로나 19에 잘 적응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지역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먼저 지역학의 두 갈래를 보자.

첫째, 타자의 지역학이다. 17~9세기에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각 지역을 탐험하면서 지식을 축적하고 그를 바탕으로 식민지를 개척했다. 주로 근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출현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와 세계의 경찰인 미국이 지역학을 주도했다. 제국주의자들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식민과 수탈을 위해서, 지역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지역학으로 정립했다. 타자의 지역학의 공간범주는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와 같은 대륙이기도 하고 모로코, 아프가니스탄, 과테말라, 베트남과 같은 국가이기도 하다. 이들의 지역학은 지배와 패권을 위한 타자의 지역학이다. 제국주의 일본 역시 지역연구와 지역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식민지 조선을 경영하고자 조선을 익히고 조선의 경제, 산업, 역사, 지리, 문화, 예술, 교육 등을 연구했다. 지금도 한국인들은 1900년대 초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수립한 조선 지역학을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타자의 지역학이다.

둘째, 주체의 지역학이다. 주체의 지역학은 타자의 지역학에 대한 대립항인 동시에 지역인의 주체정립과 민족해방을 위한 학문이다. 주체의 지역학은 지역인이 주체가 되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생존과 번영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지역인에 의한, 지역인을 위한, 지역의 미래를 향한 자기학문이 바로 주체의 지역학이다. 그러므로 주체의 충북학(Chungbuk Science)은 충북인이 주체가 되어, 충북인을 위하여, 충북의 과거를 돌아보고, 충북의 현재를 분석하며, 충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충북연구(Chungbuk Study)다. 지역학은, 지역학 창시자 아이샤드(W. Isard)가 말한 것처럼, 어떤 지역[대륙, 국가, 지방]의 지리, 기후, 정치, 경제, 산업, 교통, 문화, 예술, 역사, 환경, 종교, 인구, 관습, 교육, 주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학제간 종합연구다. 그리고 주체의 지역학은 일반 지역학을 토대로 한 자기성찰이고, 냉철한 분석이고, 미래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학이 좋을까? 당연히 주체의 지역학이다. 그러나 객관적 분석을 위한 타자의 지역학도 필요하다. 따라서 주체의 지역학을 반석에 놓고 타자의 지역학으로 자기를 반성하는 변증법적 종합의 지역학이 필요하다. 그 반성의 계기가 바로 메타버스와 코로나 19다. 현재 인류는 인공지능(AI)과 메타휴먼의 출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머지않아 인류는 현실세계와 메타버스에 동시에 거주할 것이다. 메타버스는 아직 시간을 결합한 4차원 시공간(spacetime, x,y,x,t)은 아니지만, 기술이 발달하면 시공간의 4차원 가상현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생인류는 새로운 가능세계 메타

버스에 거주하는 방법과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인류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 절묘한 시점에 코로나 19가 출현했다. 코로나 19는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인류멸망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명한 인류의 능동적 자연선택인 것이다. 여기에 메타지역학이 놓여있다.

셋째, 메타 지역학(Meta Regional Science)은 현실 지역학을 토대로 하는 현실가상의 혼용 지역학이다. 이제 인류는 영토의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다. 현실의 영토 현실공간에 코로나 19가 있는 것처럼 가상의 영토 메타버스에 바이러스 19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류는 현실의 코로나와 가상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대처해야 한다. 그것이 들뢰즈가 말한 탈영토에서 시작하여 재영토를 거쳐서 도달한 새로운 영토에서 생존하는 방법이다. 이제 충북인은 현실공간 충북에서 살면서 메타버스 충북을 개척하여 현실가상의 새로운 충북을 세워야 한다. 충북은 현실-충북이면서 메타-충북이다. 그리고 충북은 지역국가다. 충북인의 운명은 충북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북인의 영토는 현실-충북과 아울러 메타-충북에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국가 충북의 주인이고, 주인인 우리는 새로운 인류의 생태환경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지역학의 새로운 길, 메타 충북학이다.

특히 지난 20세기 충청북도 역사에서 철도는 교통수단 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경부철도는 충북을 근대화의 물결에서 소외시켰고, 충북선과 중앙선은 충북 북부권 광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충북은 장기지속적인 저발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도민은 철도가 주는 혜택을 받는 데 제한적이었다.

그런 만큼 충북학은 20세기의 충북 철도역사를 성찰하면서, 앞으로 부설될 철도들이 21세기 충북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들 철도들이 충북도민을 위한 철마가 되도록 하기 위한 역사적·인문적 대안이 무엇인지 성찰할 때이다.

더욱이 올해는 충북선 철도가 부설된지, 청주역이 개역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0년 전 놀라움과 설렘으로 마주한 충북선 철도는 일본 침략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면서 식민지 근대를 실어 날랐으며, 외부 자본과 인력이 서서히 청주 더 나아가 충북 전역을 잠식해 들어갔다. 게다가 충북선이 청주-충주-제천으로 운행되면서 이들 도시 중심으로 충북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지역은 소외되어 충북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모르고 1930년대 충북선을 서해와 동해를 잇는 ‘조선횡단철도’로 하자는 일본인과 일부 친일인사들의 연장운동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였던 충북 철도 역사였으니, 이것을 거울삼아 21세기 충북의 철도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희망대로 철도가 새롭게 부설되면, 충북의 지역환경은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중부내륙철도는 충주지역을 발전시키겠지만, 급격히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역시 인구동에 따른 도시간 긴장도를 높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철도 변화를 충북 지역학의 눈으로 새롭게 읽어내고 충북의 재구조화에 유용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은 역사, 사상, 문화, 민속, 정치, 사회 등이 서로 얽혀 있는 총체적인 실체이다. 지역 연구는 모든 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총체성 인식을 전제로 한다. 지역의 정체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이 동시에 하나의 지역에 접근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이 지역학의 특성이자 유용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북학은 철도문제는 물론 지역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다학문간의 융합을 통해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담론의 중심은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통시적 접근과 지역민 생활양식의 총체인 문화 가치를 키워드로 삼아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학은 지역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02 대중문화와 충청북도

글: 충북학연구소

드라마 속 충청북도

코로나19의 심화로 많은 도시가 4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하루에 2천명을 넘기도 했다. 때문에 올해 휴가 시즌에는 어딘가 여행을 떠나기도 마땅찮아 집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처럼 여행과 같은 소비를 증산시키는 장·단거리 이동이 위축됨에 따라 경제 시장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흐름에 오히려 추진력을 얻어 확장, 발전되고 있는 시장이 있다. “스태이 홈”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집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생활, 바로 영상 콘텐츠이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로는 드라마와 영화가 있다. 드라마는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기본 수단으로 하여 표현하는 예술 작품으로 텔레비전 따위에서 방송되는 극을 말하는데, 흔히 여러 화를 가지고 일정 기간 연재되는 영상물을 가리킨다. 영화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여 영상기로 영상막에 재현하는 종합 예술을 말한다.

본래 tv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드라마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으로 보다 다양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넷플릭스, 티빙과 같은 ott플랫폼을 넘어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 유튜브에서까지 다양한 국가, 유형의 드라마가 서비스되며, 직접 제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서비스 되는 매체가 확장됨과 동시에 제작자들도 늘어난 것이다.

작년, 청주에서 제작한 웹드라마가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바 있다. 청주시는 2019년부터 ‘러브인청주’라는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다. 시즌1은 ‘사랑하면 다 그래’로 편당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북동토성, 삼겹살거리, 명암저수지, 육거리 종합시장 등 청주의 명소를 배경으로 진행된다. 지역대학 연극영화과 재학생이 배우로 참여했다. 2020년 공개된 시즌2 ‘사랑인 게 봉명해’의 경우 청주 시책과 유명상품 등을 pp1으로 재치 있게 그려내어 호평을 들으며 온라인 입소문을 탔다.



2019 <러브인청주> '사랑하면 다 그래'



2020년 <러브인청주> '사랑인 거 봉명해'

얼마 전 tv 드라마를 통해서도 청주를 만나볼 수 있었다, 제목은 “너는 나의 봄” 로코퀸이라는 별명이 붙은 유명배우 서현진이 출연하는 로맨스 스릴러 드라마로 tvN에서 방영되었다. 8월 24일에 종영했으나 다시보기 플랫폼을 통해서 재시청이 가능하다. 해당 드라마는 청주의 드라마거리로 이름난

수암골의 한 카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드라마거리에는 충북 출신의 드라마작가 김수현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암골을 배경으로 하는 유명 드라마들(“영광의 제인”, “카인과 아벨”, “제빵왕 김탁구” 등)의 촬영 장소와 관련 동상 등이 자리하고 있다.



청주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전경
출처: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청주 드라마거리 맵
출처: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작년 충주에서 관광지 홍보를 위해 제작을 지원하고 큰 인기몰이를 한 드라마가 두 개 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빈센조”라는 드라마로 최고 시청률 18%를 돌파했다. 마지막 주 방영분에 충주의 관광지가 잇따라 등장했다. 충주 탄금호 무지개 길과 중앙탑공원, 수주팔봉과 출렁다리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다.



드라마 ‘빈센조’ 속 충주 관광지(중앙탑)
출처: 충주시 홈페이지



드라마 ‘빈센조’ 속 충주 관광지(탄금호 무지개길)
출처: 충주시 홈페이지

2019년 말 시작해 작년 초에 마무리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역시 충주에서 제작을 지원했다. 남한의 재벌 상속녀와 북한 특급 장교가 우연한 사고로 사랑에 빠지는 내용으로 최고 시청률 21.7%를 찍으며 흥행했다. 해당 드라마 역시 “빈센조”와 마찬가지로 탄금호 무지개길과 중앙탑을 배경으로 촬영했으며 더불어 충주 비내섬까지 영상에 담았다.

이 두 드라마에 제작지원을 함으로써 충주 사람들에게 tv 속에서 익숙한 장소를 발견하는 재미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흥행 성공으로 인해 특색있는 지역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이 두 지역 외에도 옥천 역시 최근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관광객을 끌어들이었다. 올해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탔던 드라마 “괴물”의 배경이 옥천이 된 것이다. 해당 드라마는 옥천의 관광명소 부소담약, 장계관광지, 대청호, 옥천성당 등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옥천읍 마암리에 위치한 정음식당 촬영 세트장을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옥천의 특산품인 생선국수를 드라마 사건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기도 했다. 생선국수가 나온 촬영지 ‘대박집’은 맛집으로 옥천을 방문하게 된다면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주요 배경으로 활용된 세트 만양 정육점은 아직도 남아있다. 드라마를 넘어 스크린에서도



장계관광지 전경
출처: 옥천시 홈페이지



드라마 “괴물” 속 옥천
출처: JTBC 유튜브

충청북도를 만나볼 수 있다.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시대에 영화관이라니 싫을 수 있으나, 영화 또한 다양한 ott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어 접근성이 좋다. 옛날 영화들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베테랑”은 청주 성안길 로데오 거리에서 촬영해 한동안 많은 관광객이 찾았다. 성안길 중앙 거리를 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네마거리로 조성해 영화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조형물을 만나볼 수 있다.(성안길 시네마거리 촬영 영화로는 “짜패”, “닥터스” 등이 있다.)

관객이 700만을 넘고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이라는 오랫동안 회자되는 대사를 남긴 영화 “내부자들” 역시 충북 단양을 배경으로 촬영되었다. 세계적인 거장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의 촬영지가 제천에 있다. 또한 오래된 명작 영화 “집으로”는 충북 영동을 배경으로 했다. 이처럼 잘 만든 영상콘텐츠



영화 “베테랑” 스틸 이미지
출처: “베테랑” 포토



영화 “마더” 촬영지
출처: 제천시 홈페이지

츠에 지역이 소개되는 경우 지역홍보효과를 볼 수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지역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다. 충북에는 이런 영화·드라마의 제작을 지원하는 영상위원회가 청주와 제천 두 군데 있다. 2021년 3월 11일 청주영상위원회와 청풍영상위원회(제천)는 충북지역의 영화영상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03 한시로 읽는 충북의 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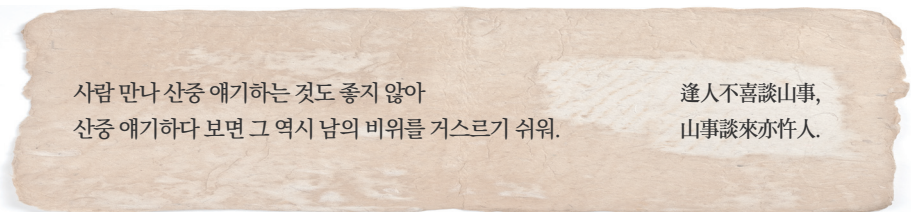
글: 조영임 (문학 박사)

보은의 처사형 학자, 대곡(大谷) 성운(成運)

보은(報恩)은 예로부터 산천이 맑고 깨끗하며, 풍속이 순박하고 화락한 고장으로 알려졌다. 신라 때는 '삼년(三年)'이라 불리다가 조선 태종 때 '보은'이라 고쳐 불렸다. 지역으로는 경상도 상주, 충북 옥천군, 회인현과 인접해 있다. 서울까지는 삼백 리 길이다. 보은의 경계에 있는 구봉산, 검단산, 금적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태백산 줄기인 속리산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속리산이 품고 있는 법주사, 북한암 또한 유명하다. 흔히 속리산을 '세속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백호 임제가 읊은 '道不遠人遠道, 山非離俗離山' 즉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이 도를 멀리하는구나. 산은 세속을 멀리하지 않는데 세속이 산을 멀리하는구나!'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이는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속과 절연된 듯한 속리산의 풍모로 인해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보은의 속리산을 탐방하고 시로 읊었다.

보은에는 정암 김정(1486~1521), 대곡 성운(1497~1579), 동주 성제원(1506~1559), 계당 최흥립(1506~1581), 어당 이상수(1820~1882), 호산 박문호(1846~1918) 등과 같은 처사형 학자들이 끊이지 않고 이곳에 은거하여 학문을 닦았으니, 보은을 학향(學鄕)이라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보은을 빛낸 위의 학자 가운데 대곡 성운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성운(成運, 1497~1579)은, 본관이 창녕, 자가 건숙(健叔), 호는 대곡(大谷)이다. 그는 관직 생활을 하지 않고 충청도 보은에 40여 년 은거하였던 처사이다. 그를 두고 역사에서는 '징군(徵君)'이라 칭하였다. 징군이란 조정의 부름을 받았지만 벼슬하지 않은, 학덕이 높은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그가 중종, 선조, 명종 때에 유일로 천거되었으나 단 한 번도 출사하지 않고 보은에 은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칭하는 것이다. 퇴계 이황은 그를 '은성(隱成)'이라 칭하였다. 이에 대해 송시열은, 온순하고 호매한 자품과 기질로 존양정색(存養精索)의 학문에 힘을 쏟았으나 끝내 세상의 쓰임이 되지 못하였기에 '은성'이라 말하게 된 것이고, 또 당시 사람들이 그의 고상함을 모르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뜻에서도 그렇게 불렀던 것이라 설명하였다.



사람 만나 산중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아
산중 얘기하다 보면 그 역시 남의 비위를 거스르기 쉬워.

逢人不喜談山事,
山事談來亦忤人.

위의 글은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실려 있다. 시인은, 산속에 은거하는 사람이 산에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한다. 그것은 산중에 대한 화제가 모든 이들에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어서 남의 비위를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맹자가 이른바, “그의 시를 외우며, 그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의 인물됨을 알지 못할 수 있겠는가?(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 可乎?)”라는 말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위의 시를 쓴 시인의 자품이 어떠한지를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성운은 30여 세에 사마시에 합격한 바 있으나 그 이후 문과에 더 이상 응시하지 않고 보은에 은거하였다. 성운의 은거는 그의 형 성우(成遇)가 1545년 을사사화로 희생된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장 50여 년에 걸쳐 지속된 4차례의 사화는 지식인으로 하여금 출사보다는 산림에 은거하도록 하였다. 성운 역시 그러한 ‘처사형 사람’에 속하였던 인물이다.

성운은 처사였지만, 또한 그는 시인이었다. 현재 그의 문집인 『대곡선생집』에는 한시 200여 수가 전하고 있다. 그의 시가 『대동시선』에 5편 선집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인으로서의 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그의 시 몇 편을 소개하여 본다.

봄옷이 몸에 맞으나 두 소매 짧막하고
옛 거문고 손에 익은테 일곱 줄이 길어라
10년 동안 산속에 있는 약을 모두 맛보았으니
손이 오면 내 입속의 향기를 맡으리.

「흥이 나서(遣興)」

春服稱身雙袖短,
古琴便手七絃長.
十年賞盡山中藥,
客到時聞口齒香.

위의 시는 『대동시선』에 수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창연담』, 『연려실기술』 등에도 실려 있으니, 성운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봄옷이 몸에 맞는 맞으나 소매가 짧다고 하였다. 소박하고 소탈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거문고를 뜯는 모습에서는 삶의 여유와 풍류를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산속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약초란 약초는 모두 맛을 보았기에 시인의 입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날 것이라고 했다. 위의 시에는 자락(自樂)의 단면이 드러나 있다. 위의 시를 두고 신희은 “시도 그 인격과 같아서 충담(沖澹)하고 한아(閑雅)하여 서호 처사의 남긴 운치가 있다.”라고 평하였다. 시품과 인품을 대하여 ‘충담한아’하다는 풍격비평을 한 것이다. 서호 처사란, 북송의 임포(林逋)를 가리킨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서호의 고산(孤山)에 은거하면서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며 즐겼기에, 당시 사람들이 ‘매처학자(梅妻鶴子)’라고 칭하였다. 성운을 은자인 임포에 비의(比擬)한 것이다.

성운이 비록 젊은 나이에 은거를 시작하였으나 그가 세상 사람들과 교유마져 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당대의 명사인 서경덕·조식·이지함 등과 교유하였으며 특히 남명 조식과 동주 성제원과는 각별한 사이였다. 조식은 출사를 거부하고 지리산 기슭에 머물면서 강학을 하며 지낸 처사형 학자였다. 또한 성제원은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던 학자로 만년에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보은 현감을 지낸 바 있다. 성운의 시에는 “추억하노니, 지난날 남명과 같은 이불을 덮고, 취하여 동주와 함께 시냇가에 누운 적 있었지(憶作南溟共被眠, 東洲同醉臥溪邊)”이라고 하였으니, 두 사람과 막역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성운과 조식은 속리산과 지리산에 각각 떨어져 있었기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시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일찍이 남명은 성운을 두고 말하기를 “정금(精金) 미옥(美玉) 같아서 나로서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칭송하였다. 또한 성운은 성제원에 대하여 ‘약제곤(若弟昆)’ 즉 형제와 같은 정의를 느낀다고 하였다.

성운은 충청도 보은 종곡에 거처하면서 그 일대와 속리산을 소재로 많은 시편을 지었다. 다음의 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한 번 종산 속에 들어와서
 소나무와 대 속 초가에 누웠노라
 하늘이 높지만 고개는 숙여야 하고
 땅은 좁아도 무릎을 펼 만하네
 명성 있는 사람 누가 있을꼬
 숲속에 이 늙은이 남아 있네
 사립문에 손은 자연 끊어지나
 금서는 놓는 날이 없네.

『송계만록(松溪漫錄)』

一入鍾山裏，
 松筠臥草廬。
 天高頭宜俯，
 地膝猶舒。
 名下何人在，
 林間此老餘。
 柴門客自絕，
 無日罷琴書。

위의 시는 성운의 문집에 실려 있지 않고 『송계만록』과 『견한잡록』에만 전하는 작품이며, 시제는 전하지 않고 있다. 종산, 즉 종곡에서의 소박한 삶을 평담하게 읊은 시다. 그러나 수구의 ‘송균(松筠)’의 어휘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상징하듯 지조와 절조를 지키며 살고 있다는 시인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은근히 표현되어 있다. 또한 미련의 ‘금서’라는 어휘에는 은자적 삶과 즐거움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것은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거문고와 서책을 즐겨 근심을 잊노라(樂琴書以消憂)”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위의 시가 수록된 『송계만록』에는 “문장이 일세에 절묘하였으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시를 보는 이가 드물었다.”라고 하고 “이와 같은 작품은 비록 옛사람들 시집 가운데 두더라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아깝도다!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한스럽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의 시가 유실되어 전하는 것이 많지 않음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좋은 술이 구름 서린 골짜기에 이르니
 한번 맛을 보매 기운이 피어오르네.
 단풍 든 대에 취해 누워 부축해도 일어나지 않는데
 산에 가득한 소나무, 계수나무는 황혼이 지려 하네.

「종산의 노인이 술을 보내준 것을 감사하며(謝鍾山老人送酒)」

靑州從事到雲門，
 一味相將氣味薰。
 醉臥楓臺扶不起，
 滿山松桂欲黃昏。

위의 시 역시 시인이 종곡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기구의 ‘청주종사(靑州從事)’는 좋은 술의 이칭이다. 옛날 진(晉)나라 때 환온(桓溫)의 막하에 있던 한 주부(主簿)가 술맛을 잘 감별하였는데, 그가 맛이 좋은 술을 청주종사라 하고, 맛이 나쁜 술을 평원독우(平原督郵)라고 하였다. 이는 평원에 격현(隔縣)이 있고 청주에 제현(齊縣)이 있는데, 좋지 못한 술은 가슴[膈]에서 오르내리고 좋은 술은 배꼽[臍]까지 내려간다는 뜻으로 그렇게 술에다 은어를 붙인 것이다. 기구의 ‘운문(雲門)’은 본래 절강성 소흥 남쪽에 있는 산 이름이다. 양나라 때 왕적(王籍)이란 사람이 벼슬살이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산에서 노닐면서 몇 달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고사가 있다. 그러니까 운문은 인적이 드문 시골을 의미함과 동시에 은자가 거처하는 곳을 뜻한다. 시인은 같은 고을에 사는 노인이 보내준 술을 한 번 맛보자 기운이 펄펄 날 것 같았다. 이렇듯 맛있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덧 대취하여 옆에서 부축해도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붉은 단풍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누대에서 소나무 계수나무에 저녁놀이 질 때까지 시인은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하루를 보냈다. 여유와 풍류가 있는 삶에 자족하는 시인의 모습이 느껴진다.

성운은 그가 살고 있는 종곡뿐만 아니라 속리산 일대의 풍광을 몹시 좋아하여 홀찍 혼자서 갔다가 여러 날 만에야 돌아오기도 하였으며, 좋은 날이면 관동(冠童)을 이끌고 수석 사이를 거닐기도 하였다. 술이 거나해지면 거문고를 뜯거나 시를 읊조렸는데 그 곡조가 너무 청고(淸古)하여 듣는 이들이 모두 녀을 잃을 지경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가 읊은 속리산 소재 시 한 편을 인용해 본다.

시냇가 하얀 돌엔 티끌 한 점 없고
자주빛 복숭아꽃 지난 봄 마냥 피었고나.
산신령은 본래 정이 많은 분인가
황발을 한 옛 친구를 기쁘게 맞이하네.

白石溪邊不點塵，
紫桃花發去年春。
山靈自是多情者，
黃髮欣迎舊主人。

「속리산 하천에서 노닐며(遊離山下川)」

속리산은 그 이름만큼이나 산의 풍광이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속리산 아래 흐르는 많은 계곡의 물줄기와 정취도 볼 만하다. 화양계곡이니, 사담계곡이니 하는 곳이 모두 그러하다. 작년 봄에 왔던 이곳을 올해 다시 찾게 된 시인은 황발의 자신을 기쁘게 맞이해준 산신령이 정이 많아 그러하다고 했다. ‘자주빛 복숭아’, ‘산신령’, ‘황발’ 등의 어휘 속에 무릉도원을 연상케 한다. 속리산 아래의 계곡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뜻이다.

성운은 이상과 같이 은거의 한취를 읊은 시를 주로 창작하였다. 그러나 때로 현실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한 「대한부(大旱賦)」, 「답우(答友)」, 「대인작(代人作)」 같은 작품이 있어 그의 사회인식과 정치사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의 문인으로는 최흥림과 임제를 들 수 있다. 최흥림 역시 을사사화 이후 식솔들을 이끌고 보은의 금적산에 은거하면서 처사로 일생을 보낸 인물이다. 임제는 익히 알다시피 속리산에 있는 성운을 찾아가서 학문을 배웠다. 그는 ‘백이의 청백과 유하혜의 화합, 옥의 윤택과 금의 정밀함을 겸비하여 수백 년 만에 겨우 나올 만한 인물’이라고 스승을 칭송하였다.

성운이 81세의 생을 마감하고 타계하자, 선조는 제물과 부의를 내리고 장례까지 돕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여헌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은 다음과 같은 제문을 지어 그를 애도하였다.

"우리 선생은 일생을 굳게 은둔하여 왕후를 섬기지 않고, 한 세상에 높이 행하여 관작과 녹봉을 좋아하지 않았습시다. 그리하여 궁벽한 시골의 한적함을 편안히 여기고, 대곡의 바람과 연기에 만족하였습니다. 눈과 달로써 금희(襟懷)를 삼고 구름과 숲으로 생애를 삼아, 성정을 거문고와 시에 맡기고, 몸과 세상을 광막한 천지에 부쳤습시다. 이로써 팔십 년 봄바람과 가을 달을 보내었으니, 누구인들 고상한 사람이라 하지 않으며 누구인들 은일의 선비라 하지 않겠습니까?"



▲ 대곡 성운이 은거하던 '모현암(慕賢庵)'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종곡2길 18-110)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403호.

성운은 비록 출사하지 않고 처사로 일생을 마쳤지만, 그의 학문과 덕망은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아래로는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칭송과 존모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읊은 한시는 오늘날에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역사에는 출사하여 고관대작을 지냈어도 동시대는 물론 후대에 의해 멸시와 폄하를 받은 인물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 역사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일종의 답을 성운의 삶과 학문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성운의 자취가 보은 땅에 남아 있음은 보은으로서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04 전설의 고향

충북

글/그림: 오수민

음성 정석오의 혼

전설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주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며, 지역에 실존하거나 실존했다고 믿어지는 증거물을 대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전설은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에 묘가 있는 '정석오(鄭錫五, 1691~1748)'와 관련된 전설입니다.

정석오는 조선 영조 때 소론의 대표적인 인물로,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유희(攸好)이다. 1746년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하였고, 1748년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로 청나라로 가던 중 병사하였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출처: 디지털음성문화대전)







05 디스커버리

충북

글: 임기현 (충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시단의 '황제', 오장환 시인



〈동아일보, 1938.2.13.〉

吳
章
煥



〈좌측 맨 아래가 오장환(조선일보, 1938.2.2)〉

이목구비가 뚜렷한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1930년대 시단의 '황제' 소리를 들었던 보은 출신의 오장환(1918~1951) 시인입니다. 제가 새롭게 찾은 이 사진은 1938년, 정확히 만 스무 살 때 찍은 것입니다. 오장환은 문인과 연극인이 함께 만든 연극단체 '낭만좌'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그해 낭만좌는 결성 직후 동아일보가 주최한 제1회 연극경연대회(1938.2.11.~13)에 셰익스피어의 '햄릿 중 묘지 장면'으로 참가했어요. 사진은 이 대회에 맞춰 찍은 것입니다. 오장환은 극 중에서 '국왕' 배역을 맡았는데요, 연극배우로서의 오장환의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나요?

충북은 현재 전국 단위 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세 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저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선배들의 연극에 대한 열정, 그 튼실한 토양도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한국 최초로 〈조선 연극사〉(1933)를 저술한 괴산 출신의 김재철(평론가, 1907~1933)은 한국 연극사 연구의 선구자로서 또, 스물여섯 요절할 때까지 다수의 희곡 작품에 몰두할 만큼 연극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해요. 1920년 봄 조선의 신극을 태동시킨 '극예술협회'를 주도, 작품도 쓰고 직접 배우로도 출연했던 진천의 조명희(1894~1938)는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지방 근대극이 뿌리를 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이어 본격적인 사실주의 극 시대를 연 '토월회(1923)'의 결성과 운영에는 청주의 김복진(미술가, 1901~1940)·김기진(소설가, 1903~1985) 형제가 큰 역할을 했어요. 형은 세련된 무대미술(장치)로 연극계의 화제가 되었고요, 동생은 주연배우로도 활약했어요. 창작극으로 본격적인 현대극 시대를 연 '극예술연구회'(1931)에 참가, 대본을 썼던 음성 출신의 이무영(1908~1960)은 극예술연구회의 총 12회의 창작극 무대에 세 차례나 자신의 작품을 올렸는데요, 특히 〈수전노〉는 당시에 또 해방 이후까지 가장 사랑받는 연극 레퍼토리 중의 하나였어요. 최근에 이 '극예술연구회'에서 조선에서 처음 시도한 음악·무용 중심극, '뮤지컬'에 해당하는 〈포기(Porgy)〉에서 음악(작곡)을 담당했던 이가 옥천 출신의 정순철(동요작가, 1901~?)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실천과 이론을 통해 신극 수립의 일석이 되자"라는 야심찬 포부를 내건 청년 예술인들의 연극단체 '낭만좌', 그 구성원 중에 시인 '오장환'이 있었음을 이 한 장의 사진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로써 충북 문인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연극사 기술은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지요. 메타버스(Metaverse)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요. 이 모든 이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짙짙한 지금의 후배 충북 연극인들까지 함께 가세하여 새로운 연극, 근사한 한 편 무대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06 충북학연구소 동향

충북학 이시습 아카데미



▶ 2021년 충북학이시습 아카데미 개최(대면)

지난 2021년 10월 6일 오후 7시 2021년 충북학이시습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양식 이사가 “동학농민혁명과 민주시민정신”이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민주시민정신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김양식 이사는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비록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이후 3·1 독립만세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혁명 등 한국 근현대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충북동학혁명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참석인원을 제한하여 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유튜브 충북학연구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북학이시습 디지털 콘텐츠 제작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면 강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충북의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하여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충북의 물'이라는 주제로 청주 초정약수, 충주 수안보온천, 제천 의림지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1년 충북학 포럼



▶ 2021년 1차 충북학포럼 개최

2021년 10월 22일(금) 오후 3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북 지방문화원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1년 충북학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충북 지방문화원이 처한 여건 및 제반 환경을 진단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문화적 환경과 여건 속에서 충청북도 각 시·군 문화원의 발전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와 토론자를 제외한 현장 참여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였습니다. 현재 유튜브 충북학연구소 채널에서 당시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2차 충북학포럼 개최 예정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오는 12월 3일(금) 13시 30분 괴산문화원에서 “충북의 독립운동가 우당 권동진”이라는 주제로 2차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괴산문화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걸순(충북대 교수), 김근수(전 괴산향토사연구회장) 등의 발제를 통해 민족대표 33인 중 1인인 민족대표 우당 권동진(1861~1947)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07 충북 지역학 별거 있슈

충청북도

충북문화재연구원 문화재 수어해설 영상 공개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 수어해설영상을 '충북 문화유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수어해설영상은 총 9가지로 '단양 도담삼봉', '청주 상당산성', '보은 범주사 팔상전', '충주 탐평리 칠층석탑',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빙좌상', '옥천 이지당', '영동 심원리 승탑', '음성 감곡성당', '진천 농다리'를 수어해설로 만나볼 수 있다.

충북 문화유산 유튜브 채널



진천 농다리 수어해설 영상 캡처



음성 감곡성당 수어해설 영상 캡처

괴산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 괴산 안치용 인정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 안치용(安致鏞, 충청북도 괴산군)을 포함하여 김삼식(金三植, 경상북도 문경시), 신현세(申鉉世, 경상남도 의령군) 총 3명을 인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인 '한지장'은 우리나라 전통 종이의 제조기술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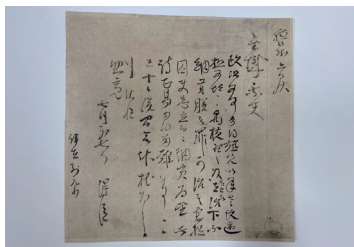
안치용 씨는 현재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서 1981년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약 41년간 한지 제조에 종사해 온 장인이다.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였던 고(故) 류행영 씨에게 전통 한지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숙련도가 높으며, 연장과 설비도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 한지장

증평

김득신문학관 유물 39점 추가 확보



충북 증평군 김득신문학관에서 전시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유물 39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확보된 유물은 대부분 김득신의 독서활동을 조명하고 행적을 알 수 있는 조선시대 고서(古書) 등이다. 이 중 김득신이 직접 쓴 간찰이 있는데 이는 국내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며 문학관에서 활용할 대표 유물로 소장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다. 선생이 노성현감으로 있을 때 구당(久堂) 박장원(朴長遠)

의 아들 박빈(朴嬪)에게 보낸 내용으로 초서 전문가를 통해 번역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김득신과 아버지 김치의 이름이 수록된 청구호고(靑邱號攷), 과거 급제자로 김득신 부자의 이름이 기록된 국조방목(國朝榜目)도 문학관에서 소장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증평군청 문화체육과 보도자료

청주

'청주 고령신씨 명가목적' 충북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충청북도는 2021년 7월 9일 고령신씨 영성군파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주 고령신씨 명가목적(淸州 高靈申氏 名家墨蹟)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청주 고령신씨 명가목적은 청주에 오랫동안 살아온 고령신씨 영성군파 문중에서 전해온 목적(墨蹟)이다. 목적에는 △신숙주의 4세손인 신중엄(申仲淹, 1522~1604)의 팔순 잔치에 그의 아들 신식(申湜, 1551~1623)·신설(申濬, 1561~1631) 형

제가 손님을 초대하거나 따로 시를 받아 묵은 경수도첩(慶壽圖帖), △신식·신설 형제의 관력(官歷)과 관련된 연경별장(燕京別章)·관동별장(關東別章)·해서별장(海西別章) 등 3점, △경수도첩에 누락된 글을 포함해 당대 인사들과 주고받은 만력간독첩(萬曆簡牘帖), △신설의 현손 신태(1662~1729)이 허목(許穆, 1595~1682)에게 받은 좌우명을 적은 미수서적(眉叟書蹟) 등 총 6점이다.

이 목적에는 당대의 명필로 유명한 석봉 한호(韓濩, 1543~1605), 미수 허목(許穆, 1595~1682) 등의 필적, 백사 이항복, 지봉 이수광, 한음 이덕형, 어우 유몽인, 허균 등 당대 유명인사들의 시문과 윤의립(尹毅立, 1568~1643)의 그림으로 전하는 산수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예술적인 가치도 매우 높다. 또한, 당대의 주요 인물들의 시문을 집성해 당시의 문화와 풍습, 사회상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기록 자료이자 청주를 대표하는 세거성씨(여러 대에 걸쳐 계속 살아오고 있는 성씨)의 중요유물로서 자료적인 가치 및 예술성으로도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편, 청주 고령신씨 문중과 연관된 문화재로 청주 백석정(문화재자료 제82호), 청주 신중엄 신도비(유형문화재 제161호), 청주 목정영당(유형문화재 제108호), 신숙주 초상(보물 제613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이번에 지정 예고한 청주 고령신씨 명가목적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충청북도인터넷신문(<http://news.chungbuk.go.kr>)

제천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 송시열 초상 등 유물 제천시에 기증



제천시는 지난 8월 2일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으로부터 송시열 초상을 비롯한 총 7점의 유물을 기증받았다. 기증받을 유물은 송시열 초상, 권상하 초상 및 초본, 한원진 초상, 권욱 초상, 윤봉구 초상 등으로 특히 기증대상 유물이 전부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심의 중인 유물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초본을 제외한 5점의 초상화는 모두 201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제천시가 보존·관리하던 중 지난 6월 23일 송시열 초상이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권상하 초상 및 초본이 보물지정심의 중이다. 유물을 기탁한 한수재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후손인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에서는, 2005년부터 초상화들을 기탁 받아 관리 중인 제천시에 “문화유산은 전 국민이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들어 기증의사를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기증 여부 심의 및 화상공개 등 주요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2일 이상천 제천시장이 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함으로써 기증절차를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보물로 지정된 유물을 비롯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기증됨에 따라 상설전시실을 개편하여 3일부터 기증 유물들을 전시한다”며, “앞으로도 역사 유물 확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역사박물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제천시청 홈페이지 <오늘의 뉴스>

2021 “충북학 제23집 원고 모집”



충북학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충북학』에 수록될 원고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당초 10월 22일 투고 마감기한을 오는 11월 20일까지 연장하오니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충북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해석과 재조명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옥고를 보내주시면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충북학』 제23집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모집 정보

모집분야 | 충북관련 연구논문 및 비논문 원고 모집

모집 대상

연구자, 대학원생, 대학생, 일반인

분야	분량
연구논문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연구논단(논문과 저널의 중간수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저널(문화초점, 인물탐구, 자료소개, 서평 등)	

모집 일정

원고마감 | 2021년 11월 22일 (월)

발간시기 | 2021년 12월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cbc9236@cri.re.kr

문의 | 043) 220-1161

※ 자세한 사항은 충북학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

※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The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의 정체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1~2

홈페이지 <http://csi.cri.re.kr>